

# POLITICS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 ‘포스트 이재명’ 민주 당권경쟁, 친명 대결 점화

### 박근혜, 국회 등원 1주년 21일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구 갑·사진)은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근혜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활동과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박근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광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첫해는 윤석열 정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민적인 저항과 ‘빛의 혁명’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등 현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격동의 시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수상하며 탁월한 의정활동 역량을 보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에 광산구 현안을 대거 반영했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광주와 광산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데 앞장섰고 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 안전보안관 50명 대상 체험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

광주시는 18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보안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 역할 및 활동 우수사례, 2025년 안전보안관 운영 방향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대중교통 사고 시 긴급 탈출, 보행·가스안전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심폐소생술·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응급안전 체험 교육 등 안전보안관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실무진과 경남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박찬대, 이르면 주말 출마 선언할듯 지지층 결집 속 일찌감치 물밑 경쟁 노종면 “제3자 출마 검토...3파전도”

3년 만에 정권교체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전 최고위원이었던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 원내대표였던 3선 박찬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각각 지지층 결집이 드러나는 추세다.

이번 당권 경쟁은 행정부의 수반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추며 경제와 군민을 위한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임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잔여 기간 1년이지만 ‘국민주권정부’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친이재명) 계 간의 대결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전 당원투표제 상설화, 연내 검찰·사법·인론 개혁 마무리,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적 공천 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낸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 준 선명한 대야 투쟁노선이 강점이다.

최근 야당과 이견이 드러난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법대로 하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거쳐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주말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묻자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BBS 라디오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머지않아 이번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당권 경쟁이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추기교 당 대표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예기도 흘러나왔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정당대회)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더 될지 그걸 알 수 없다”며 “(정·의·박·의·외) 지금 검토하는 분이 계신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권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친명계 내에서 일찌감치 온라인 연판장이 나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는 등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8월 2일 예고된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이다.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친명(친이재명)을 넘어 친명(친이재명), 정명(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그룹까지 분화되며 친명 간 내부 다툼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예까지 나올 정도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15일경부터 박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연판장이 공유됐으며, 박 의원 팬클럽을 중심으로 200~300여명이 참여

하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연판장은 박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는 사이 당원 표심이 정 의원으로 쏠리며 대세론이 형성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의원의 팬클럽 역시 ‘이재명·정청래 명(이재명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그룹까지 분화되며 친명 간 내부 다툼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예까지 나올 정도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15일경부터 박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연판장이 공유됐으며, 박 의원 팬클럽을 중심으로 200~300여명이 참여

리에 있던 사람. 정 의원은 조금 멀지만 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응호했던 수석최고위원 출신”이라고 말했다.

당원 커뮤니티에도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를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며 지지층 간 신경전이 엿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 두 의원의 대결에 대해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같은 문제”, “두 사람 중 누가 되든 당을 잘 이끌 거라 믿는다”, “당원들 어릴적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풀어야 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시, AI 당지기 등 혁신행정 노하우 전수

### 7개 지자체와 혁신 멘토링...시민 참여 정책 성과 소개 광주다움 통합돌봄·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 경험 전파

광주다움 통합돌봄, AI 당지기 등 광주시의 혁신행정 노하우가 전국으로 퍼진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열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AI당지기’ 등 광주시 주요 혁신행정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멘토링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서의 혁신 경험을 타 지자체에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실무진과 경남

창원시, 전북 정읍·군산시, 전남 광양시, 정읍·구례·강진군 등 7개 멘티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번 멘토링을 통해 국제도시 혁신상 및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최초로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 ‘AI 당지기’ 등 대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시행착오 및 해결 전략을 공유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의 ‘AI 당지기’는 당직제 폐지와 맞물려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개선한 사례로, 멘티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시민이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평가박람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행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무자간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으로 이전 촉구

### 도의회, 건의안 채택...수산물 생산량 60% ‘수산업 중심지’

전남도의회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전남에 해양수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사진)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200만톤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업 중심지인 전남으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지방 균형발전과 해양수산 현장에 기반한 정책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수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이자 미래 수산업 혁신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전남으로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해양수산 유통 혁신을 주도할 최적의 장소로 전남을 꼽으며, “전남은 기존 해양수산 인프라 및 유통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수산자원 관

리하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촌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와 어촌

어항 특화개발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및 미래 해양가치 창출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전남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영록 “재난대응체계 구현·밀착 대응 강화” 취약계층 공무원전담관리·위험지역 수시 점검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20일 부터 전남에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부서에 재난대응체계 책임행정 구현·주민 밀착형 대응 강화 등을 특별지시했다.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재해 위험지역과 시설을 직접 점검

김영록 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시군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선조치 후보고) △도-시군-유기기관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 대응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지역 수시점검 관리 △특고노인, 재가장애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1대1 전담 공무원관리제 운영 △일몰 전 주민 대피 원칙 정립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를 통해 주민 밀착형 대응을 강화토록 했다. 지역

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상예측을 뛰어넘는 돌발성 극한호우가 찾아지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별해 재난안전전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도민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박정철 기자 holbul@

## ‘수어로 세상을 잇다’...영암서 전남 농아인 대회

전남도는 18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농아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17회 전남 농아인 대회가 열려 이들이 담당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권의 증진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협회장 백성구)에서 주관한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우승희 영암군수,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애인단체장, 농아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농아인대회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립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목! 수어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1부 기념식은 소림학교 꿈자람 무용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농아인 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격려사 등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로 열린 35회 수어문화예술회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연극, 노래 등 다양한 수어공연을 선보이며 수어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농아인에게 자긍심과 재미를 선사했다.

이밖에도 전남행복서비스를 통한 건강기초검진과 이·미용 서비스, 도 장애인복지관 체험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백성구 협회장은 “농아인의 언어와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리잡도록 농아인의 권익증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holbul@